

# 建築士報酬料率에 對한 解明

76. 7. 1일자 일부 신문에 건축사 보수 요율이 마치 종전요율의 3배로 인상되어 서민 주택 건립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으로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국민제위의 건축사 보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그리고 변함없는 협조를 간망하는 바입니다.

## 1. 보수 요율 개정 사유와 서민 주택 대책

(건축사 보수 요율은 10년만에 처음으로 평균 26<sup>53</sup>%가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가. 건축사 업무 및 보수 기준에 의한 요율은 1966. 7. 5 인가된 요율에 10년간의 도매 물가 상승 지수와 건축 공사의 인건비 상승 지수 및 국민 소득의 증가등 제반 및 여건이 감안되어 평균 26%가 인상 조정되어 인가된 것인바 특히 동 개정 요율에서는 개정되기 이전 2종으로 책정되어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17평 이상 25평 미만의 서민 주택과 17평 이상 50평 미만의 농어촌 주택의 영세성을 감안 요율이 낮은 1종으로 분류 조정되었음.

나. 25평 이하의 서민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설계비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에서 12평-20평형의 표준 설계 도서를 9,700부를 제작 기하 각 시도에 배부되어 지역별로 무료 또는 부당500원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부 요청에 따라 서민 주택의 규모를 25평으로 확대 표준 설계 도서를 작성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2. 개정된 보수 요율의 구성 내용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를 한데 묶어 책정한 관계로 크게 인상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종전의 요율은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의 요율을 각각 분리 책정했던 것이나 개정 요율에서는 설계와 공사 감리의 일관성을 감안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설계 감리 보수 요율로 일괄 책정한 관계상 설계 보수 요율이 크게 인상된 것처럼 보이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

## 3. 일부 신문에서 인용된 종전의 보수 요율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임.

일부 신문에서 인용 보도한 종전 요율 1.9%는 설계 보수 요율이 아니고 공사 감리 보수 요율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서 종전의 공사비가 500만원까지의 1종 보수 요율은 설계 보수 요율이 2.3% 감리 보수 요율이 1.9%로서 이를 합한 요율은 4.2%였음.

이상과 같이 보도된 자료가 잘못 인용됨에 따라 설계 감리 보수 요율이 3배나 인상된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음.

## 4. 25평 주택의 종전과 현행 설계 감리비의 비교

“예” 건물규모 25평

공사비 3,375,000원(평당 135,000원)

### 1) 종전 설계 감리비

(요율 5.7% <설계요율 3.3% 감리요율 2.4%)

$$3,375,000원 \times \frac{5.7}{100} = 192,375원$$

### 2) 개정 설계 감리비(요율 6.42%)

$$3,375,000원 \times \frac{6.42}{100} = 216,675원$$

### 3) 인상율 12.6%

$$\frac{216,675원}{192,375원} = 1.126$$

이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 요율의 개정으로 서민 주택 설계비가 종전의 3배 이상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임.

## 5. 報酬料率은 그대로 適用되고 있음.

개정보수요율은 7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1600여 회원은 모두 개정 보수요율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주하고 있는바 일부신문에서 보도된 보수액평당 2,000원 운운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니 건축주제위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976. 7. 대한건축사협회